



20
21

Vol. 01

인터넷 기사

대중매체 양성평등 내용 분석 보고서



대중매체
양성평등
내용분석 보고서

인터넷
기사

04
양적 분석

08
내용 분석

28
나가며

30
체크리스트

본 사업은 서울YWCA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의뢰를 받아 수행한 것입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수행기관의 의견으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공식적인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기사 내용분석보고서

서울YWCA 대중매체 성평등 모니터단은 인터넷 기사의 성평등, 성차별 사례 분석을 위해 2021년 4월 19일부터 4월 25일까지 네이버 뉴스스탠드에 업로드된 48개 주요 언론사의 기사를 모니터링 하였다. 언론사 메인 화면에 노출되는 기사를 대상으로 하였고, 외국어 기사를 제공하는 3개 언론사는 제외했다.



표1 _____모니터링 매체

연번	매체명	연번	매체명	연번	매체명
1	경향신문	17	서울신문	33	중앙일보
2	국민일보	18	세계일보	34	지디넷코리아
3	노컷뉴스	19	스포츠동아	35	코리아헤럴드
4	뉴데일리	20	스포츠서울	36	파이낸셜뉴스
5	뉴스타파	21	스포츠조선	37	프레시안
6	뉴스시스	22	스포탈코리아	38	한겨레
7	데일리안	23	시사인	39	한국경제TV
8	동아일보	24	아시아경제	40	한국일보
9	디지털타임스	25	아이뉴스24	41	헤럴드경제
10	마이데일리	26	연합뉴스TV	42	JTBC
11	매일경제	27	오마이뉴스	43	KBS
12	머니투데이	28	이데일리	44	MBC
13	문화일보	29	일간스포츠	45	MBN
14	미디어오늘	30	전자신문	46	OSEN
15	블로터	31	조선비즈	47	SBS
16	서울경제	32	조선일보	48	YTN

[양적 분석]

뉴스스탠드 48개 매체의 언론 기사를 양적 분석한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성평등·성차별적 내용

성평등적 내용을 담은 기사는 총 47건으로 파악했다. 이는 2020년 6건의 성평등적 기사에 비해 증가한 수치이다. 모니터단 구성 변동 등의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최근 미디어/언론사에서 성차별적 보도에 대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성평등한 기사를 생산하려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고¹, 성평등 기사의 증가는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성차별적인 기사의 수도 지난해 대비 감소했으나, 성차별적 제목, 내용, 사진 등을 담은 기사 178건을 확인하였다. 성차별적 내용을 담은 기사에서 특정 성별의 연예인을 성적인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시각이 담긴 기사가 55건(30.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외모에 대한 평가가 담긴 기사가 48건(27%), 성차별적, 선정적 성범죄 보도 관행²을 그대로 답습하는 기사가 35건(19.6%) 있었다. 특정 성을 비하하거나 기사 내용과 관계없이 ‘여(女)’를 사용해 조회 수를 유도하는 ‘기타’ 사례를 총 28건(15.7%) 발견했다.

표2 _____ 성평등·성차별적 내용 수 (단위:건)

구분	건수		구분	건수	
	21년	20년		21년	20년
성평등적 내용 주체성, 현실반영성, 다양성, 대안성을 중심으로	47	6	젠더(성별) 고정관념 형성	12 (6.8%)	5 (2.2%)
			성차별적, 선정적 성범죄 보도 관행 ²	35 (19.6%)	30 (13.2%)
			외모에 대한 평가	48 (27%)	60 (26.9%)
			성적 대상화	55 (30.9%)	102 (44.9%)
			기타	28 (15.7%)	30 (12.8%)
합계	47 (100%)	6 (100%)	합계	178 (100%)	227 (100%)

1 _____ "여제는 없다"남성중심 용어부터 NO! 성평등 확산 나서는 언론들(2019.06.25.,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ociety/media/899309.html>

2 _____ 성폭력·성희롱 사건 보도 공감 기준 및 실천 요강(2018, 한국기자협회·여성가족부) 및 서울YWCA 텔레그램 성 착취 사건 보도 모니터링 지표 참고

2 매체별 성평등·성차별 건수

매체별로는 경향신문이 8건, 한겨레와 한국일보가 각 6건의 성평등적 기사를 실었다. 이어 프레시안(5건), 미디어 오늘(4건)에서 성평등적 기사를 발견했다. 데일리안, 헤럴드 경제, KBS가 각 3건의 성평등적 기사를 실었다. 이어 노컷뉴스 2건, 국민일보, 뉴데일리, 동아일보, 서울경제, 조선일보, 중앙일보, SBS가 각 1건의 성평등적 기사를 실었다.

표3 _____ 매체별 성평등 보도 사례 수 (단위:건)

연번	매체명	성평등 사례 수	연번	매체명	성평등 사례 수
1	경향신문	8	2	국민일보	1
38	한겨레	6	4	뉴데일리	1
40	한국일보	6	8	동아일보	1
37	프레시안	5	16	서울경제	1
14	미디어오늘	4	32	조선일보	1
7	데일리안	3	33	중앙일보	1
41	헤럴드 경제	3	47	SBS	1
43	KBS	3	합계		47
3	노컷뉴스	2			

성차별적 기사를 게재한 매체로, 스포츠서울(30건, 16.9%)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가장 많은 성차별적 기사를 실었다. 이어 마이데일리(17건, 9.5%), 일간스포츠와 OSEN(각 12건, 6.7%)이 뒤를 이었다.

표4 _____ 매체별 성차별적 보도 사례 수 (단위:건)

연번	매체명	성차별	사례 수	
			성차별	성차별 사례 분류
2	국민일보	4	젠더 고정관념 형성	2
			성차별적, 선정적 성범죄 보도 관행	2
3	노컷뉴스	1	성차별적, 선정적 성범죄 보도 관행	1
4	뉴데일리	1	성차별적, 선정적 성범죄 보도 관행	1
6	뉴스1	4	성차별적, 선정적 성범죄 보도 관행	4
8	동아일보	5	젠더 고정관념 형성	2
			성차별적, 선정적 성범죄 보도 관행	1
			외모 평가	1
10	마이데일리	17	외모 평가	4
			성적 대상화	12
			기타	1
11	매일경제	1	외모 평가	1

결과 분석

연번	매체명	사례 수		
		성차별	성차별 사례 분류	
12	머니투데이	7	성차별적, 선정적 성범죄 보도 관행	1
			성적 대상화	5
			기타	1
13	문화일보	4	성차별적, 선정적 성범죄 보도 관행	1
			기타	3
17	서울신문	10	성차별적, 선정적 성범죄 보도 관행	7
			외모 평가	1
			성적 대상화	1
			기타	1
18	세계일보	2	기타	2
19	스포츠동아	10	성차별적, 선정적 성범죄 보도 관행	1
			외모 평가	2
			성적 대상화	4
			기타	3
20	스포츠서울	30	성차별적, 선정적 성범죄 보도 관행	2
			외모 평가	15
			성적 대상화	11
			기타	2
21	스포츠조선	5	외모 평가	3
			성적 대상화	2
22	스포탈코리아	6	외모 평가	3
			성적 대상화	3
24	아시아경제	3	기타	3
25	아이뉴스24	1	성차별적, 선정적 성범죄 보도 관행	1
28	이데일리	3	성차별적, 선정적 성범죄 보도 관행	2
			성적 대상화	1
29	일간스포츠	12	외모 평가	11
			성적 대상화	1
30	전자신문	1	성차별적, 선정적 성범죄 보도 관행	1
32	조선일보	2	기타	2
33	중앙일보	5	성차별적, 선정적 성범죄 보도 관행	4
			기타	1
36	파이낸셜뉴스	6	성차별적, 선정적 성범죄 보도 관행	1
			성적 대상화	1
			기타	4
39	한국경제TV	7	성차별적, 선정적 성범죄 보도 관행	1
			외모 평가	3
			성적 대상화	2
			기타	1
40	한국일보	5	젠더 고정관념 형성	2
			성차별적, 선정적 성범죄 보도 관행	2
			기타	1

양적 분석

연번	매체명	사례 수		
		성차별	성차별 사례 분류	
41	헤럴드 경제	2	젠더 고정관념 형성	1
			성차별적, 선정적 성범죄 보도 관행	1
42	JTBC	1	젠더 고정관념 형성	1
43	KBS	2	젠더 고정관념 형성	1
			성차별적, 선정적 성범죄 보도 관행	1
45	MBN	8	성차별적, 선정적 성범죄 보도 관행	1
			외모 평가	4
			성적 대상화	3
46	OSEN	12	외모 평가	8
			성적 대상화	3
			기타	1
47	SBS	1	성차별적, 선정적 성범죄 보도 관행	1
합계		178	-	

[내용 분석]

뉴스스탠드 언론기사의 주요 내용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성평등적 내용

2020년에 비해 올해 성평등적 내용을 담은 기사, 성범죄에 관한 적합한 보도 방식을 취하는 기사가 증가했다. 성범죄 판결을 소개하는 기사 또한 눈에 띄었는데, 성범죄 판결에 대해 보도함으로써 성범죄의 심각성을 일깨우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젠더 갈등 프레임³에서 벗어나 성 불평등한 현실과 성차별을 직시하고 해결 중심 프레임으로 개선하기 위한 기사 또한 꾸준히 보도되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는 성평등 기사로 2021년 상반기에 이슈가 된 여성 징병제와 관련해 젠더 간 입장과 사안들을 균형 있게 조명한 기사, 영화 “미나리”출연으로 여러 국의 영화상을 수상한 윤여정, 운동하는 노년 여성, 장애 여성 등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여성 등을 소개한 기사들을 추려 실었다.

성범죄 사건 보도윤리와 정의로운 해결을 강조한 기사

기존 성범죄 보도에 대한 문제 인식을 토대로 성폭력 범죄 보도 세부 권고 기준⁴에 따른 보도윤리와 정의로운 해결을 강조하는 기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잘못된 성범죄 보도로 인한 2차 가해의 문제를 짚고, 성차별/성폭력 사건을 피해자의 시각으로 조명하였다. 또한 성차별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사회 구조적인 측면에서 사건의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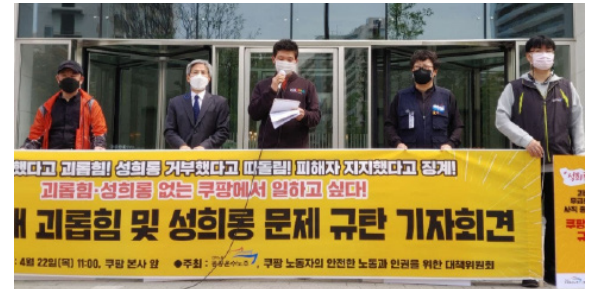
기사제목	분석
미디어 오늘 4/20 '포항MBC 성희롱 2차가해' 엄중 대응키로	방송국에서 벌어진 성폭력 사건, 사건에 대한 잘못된 대처, 이로 인해 발생한 2차 가해를 지적하고 있는 기사다. 여성단체와 노동단체가 해당 방송국에 지속적으로 시정 요구 및 권고하여 책임자 사과와 시정 조치가 이뤄진 것을 다룬다. 직장 내 성폭력 사건을 짚고, 잘못된 방식의 대응이 어떤 과정을 통해 변화했는지 함께 다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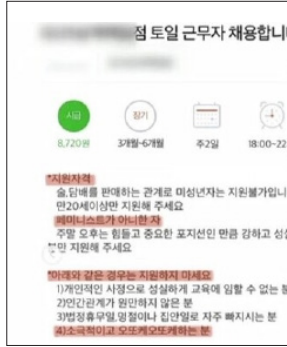
3 _____ 젠더 갈등 프레임에 대한 논의는 다음 기사 참고, 오경민, 최민지 기자, “근거 없는 ‘남혐’정치인-언론 타고 공론장으로…‘페미니즘 백래시’”, 경향신문, 2021.5.14.,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105140600015>

4 _____ 한국기자협회, 성폭력 범죄 보도 세부 권고 기준, https://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9

기사제목	분석
프레스이안 4/22 쿠팡 노동자 “밴드 활동 이유 괴롭힘...성희롱 피해자 돕다 징계”	회사 내에서 괴롭힘과 따돌림을 당한 사건을 조명하고, 해당 사건의 피해자를 지지했다가 징계를 받게 된 당사자들의 기자회견 내용을 다루는 기사. 성희롱 등 노동자에 대한 성폭력 사건에 미온적이고, 악의적으로 대응하는 기업의 행태를 지적하고, 피해 당사자들이 자신의 권리에 대해 주장하는 내용을 함께 보도하고 있다.
미디어오늘 4/22 이수진 의원, 오세훈 성추행 피해자 사과에 “진정성 있어” 평가	전(前) 서울시장에 의한 성폭력 혐의 사건에 대해 후임 서울 시장이 공식 사과했다는 내용을 다룬 기사는 사과 내용을 자세히 다루며 사과에 대한 피해자의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 사건 당시 가해자의 장례식 등 행정적 절차를 담당했던 담당 공무원에 대한 인사조치 등의 내용도 함께 다루고 있다.
프레스이안 4/20 오세훈 “박원순 성폭력 사과...‘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	‘박원순 사건’ 사과한 오세훈 “성비위 땀 원스트라이크아웃”
한겨레 4/20 [사실] 윤호중의 부적절한 ‘피해자’ 사과, 제대로 다시 해야	고위 공무원의 성폭력 가해에 대해 소속 정당의 정치인이 적절치 않은 장소에서 잘못된 방식으로 사과를 했음을 지적하며 올바른 사과가 필요함을 강조하는 기사다. 해당 기사는 성폭력 사건에 적절한 방식과 형태의 사과가 필요함을 알리고 있다.
프레스이안 4/22 ‘오거돈 성추행’ 피해자 “왜 현충원 사과? 너무 모욕적”	고위 공무원의 성폭력 가해에 대해 소속 정당의 정치인이 적절치 않은 장소에서 잘못된 방식으로 사과를 했음을 지적하며 올바른 사과가 필요함을 강조하는 기사다. 해당 기사는 성폭력 사건에 적절한 방식과 형태의 사과가 필요함을 알리고 있다.
한겨레 4/23 [사실] 윤호중의 부적절한 ‘피해자’ 사과, 제대로 다시 해야	고위 공무원의 성폭력 가해에 대해 소속 정당의 정치인이 적절치 않은 장소에서 잘못된 방식으로 사과를 했음을 지적하며 올바른 사과가 필요함을 강조하는 기사다. 해당 기사는 성폭력 사건에 적절한 방식과 형태의 사과가 필요함을 알리고 있다.
미디어오늘 4/24 ○○여대 “언론, 리얼돌 관련 보도에 대학 이름 익명 처리하라”	여성 대상 강력 범죄 기사를 보도하며 느꼈던 기자의 경험과 감정을 솔직하게 전달하며, 여성을 향한 성범죄가 기본권의 측면에서 다뤄져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기사는 최근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젠더 문제에 여러 정치인들이 쏟아낸 발언이 왜 문제적인지 언급하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특정 발언이 특정 성별의 전체 의견인 듯 여겨지는 상황 또한 주의해야 한다고 말한다.
한겨레 4/23 ‘기본권과 기본권’,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기사제목	분석
한겨레 4/29 GS25는 제2의 동아제약? 이미지만 걱정, 성차별엔 입 닫아	해당 기사는 성차별 채용공고를 통해 물의가 된 기업의 부족한 사과와 적절치 않은 대응을 지적하고 있다. 다른 기업에서 논란이 되었던 사례를 함께 제시하며, 성차별적인 채용에 대한 문제의식을 강조하고 있으며, 과거 광고에서 다뤄진 '된장녀' 등의 혐오 표현, 기업 내의 여성 임원 비율을 함께 다뤄 성차별적인 기업 운영에 대한 문제를 함께 짚고 있다.



젠더 갈등 프레임은 탈피하여, 해결적 관점을 제시하는 기사

성평등 사회로의 진전과정에서의 저항이 발생하는 상황을 '젠더 갈등'으로 단편화하여 분석하는 젠더 갈등 프레임에서 벗어나 해결적 관점에서 문제를 짚고 대안을 제시하는 기사들이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 병역제도에 대한 논의가 젠더 이슈와 연결되는 지점을 다각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기사들도 다수 보도되었다. 2021년 4월 19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시켜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글에 10일 만에 24만 명이 동의했다. 1999년 군 가산점 제도 위헌 판결 이후 지금까지 병역 제도에 대한 논의가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언론은 여성징병제에 대한 논의를 젠더 갈등 프레임으로 앞다투어 다루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여성 징병제 논의를 젠더 갈등 프레임에서 벗어나 구조적 문제로 짚어내는 기사를 실었다. 이 기사들은 병역 의무와 관련된 젠더 정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줌으로써 병역제도를 둘러싼 '젠더 갈등' 현상과 제도에 대해 성찰하도록 한다.

젠더 갈등 프레임에 기반한 극단적인 의견을 반복적으로 인용하는 정치계와 언론의 행태를 꼬집는 기사 또한 눈에 띈다. 또한,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보도 관행이 여성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을 만들어낸다고 지적하는 기사는 일상에서 은연중에 발생할 수 있는 젠더 고정관념에 경각심을 일깨운다.

기사제목	분석
헤럴드경제 4/19 與 권인숙 "징병제는 女차별 근원...대선서 모병제 논의해야"	징병제 논의에 젠더 이슈가 더해진 현 상황에서 여성 징병제를 보는 시각을 담은 기사다. 기사는 여성을 징병하기 전에 군의 이미지 개선, 군의 폭력적 문화 개선 및 남성 중심적 위계 개선, 안보 현실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레시안 4/24 '차별'은 그대로 두고 '가산점'이나 쥐어주던 게으른 정치의 결과물	
한국일보 4/22 "정치인들, 남초 카페서 이슈 캐오는 것 그만둬라"	20대 남성의 지지를 얻기 위해 정치권에서 남성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는 현상을 지적하는 기사다. 현재 일부 20대 남성들이 군 복무와 29세까지 여성 취업률이 남성 취업률보다 높다는 점을 토대로 차별받는다며 여기는 생각에 대해 반론을 제기한다. 여성은 30대부터 고용 중단을 겪고, 남성 취업률이

기사제목	분석
헤럴드경제 4/19 與 권인숙 "징병제는 女차별 근원...대선서 모병제 논의해야"	더 높으며 임금 격차도 성차별 외에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는 현실을 밝히고 있다. 그 외에도 정치인들이 남성 중심 커뮤니티에서 이슈만 캐올 뿐 제대로 고민하지 않고 전형적인 포퓰리즘만을 보이고 있음을 지적했다. 남녀평등(균)복무제에 대해서도 한국의 군대에는 여성을 위한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고, 인식 또한 남성 군인과 동등하지 않음을 알리고 있다.



경향신문 4/24 "젠더 갈등? 20대들이여 속지말자!"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각각 더불어민주당 후보, 국민의힘 후보, 녹색당 후보에게 투표한 세 여성의 이야기를 담은 기사다. 20대 여성이 소수정당에 투표한 이유가 무엇인지, 20대 남성이 국민의 힘을 적극 지지한 이유가 무엇인지, 젠더 정책에 관한 생각은 어떤지 논의한 내용이 담겼다. 여성들이 현실적으로 느끼는 성 불평등이나 정치권의 현재 모습 및 변화를 바라보는 시각을 담았다.
---------------------------------	---



경향신문 4/23 [위근우의 리플레이] 네이버 웹툰에 대한 여성혐오자들의 악플 테러는 어떤 사회적 용인 위에서 벌어졌는가	웹툰의 내용과 관계없이 웹툰 베스트 댓글란이 차별 및 혐오 표현으로 가득 차있는 현상을 지적하는 기사다. 기사는 웹툰 댓글 테러가 성평등 및 차별 표현에 대한 논의가 사회적으로 충분히 합의되지 못하거나 합의를 파기하며 벌어진 것이라고 본다. 이런 상황 속에서 웹툰 댓글을 통해 보여지는 여성에 대한 편견과 차별, 여성의 능력을 폄하하는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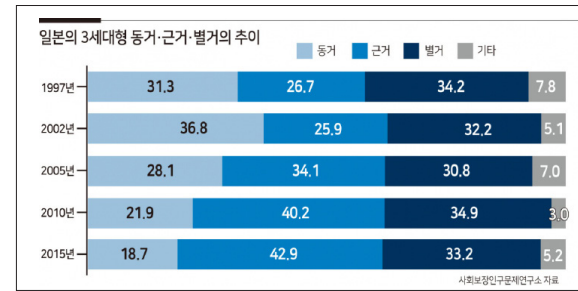
기사제목

분석

헤럴드경제 4/19

‘친정 엄마가 옆단지 살아요’, 확산되는 근거리 주거가 저출산 해결책? [부동산360]

기사는 일본의 저출산 대책 사례를 가져와 돌봄 역할을 여성에게 전가하거나, 개인적 차원에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하는 문제임을 드러낸다. 기사는 양육과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주거문제와 출산문제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정책지원을 해야 할 것을 강조한다.



경향신문 4/22

“부동산 투기는 아내가 한 일” 뒤에는 ‘젠더 불평등’이 있다

남성 정치인이나 고위 관료들이 투기 문제에 대해 “아내가 한 일이며 나는 몰랐다”라고 주장하는 행위를 비판하는 기사다. 기사는 여성이 가정 내 경제적 생산성과 유능함을 증명하고자 부동산을 통해 자산 소득을 해야 하는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고 본다. 동시에 부동산을 통한 자산 획득의 부정적 측면이 부각되면 여성은 한국 사회에서 투기적 존재로 묘사된다고 비판한다. 기사는 주택실천에 존재하는 젠더 불평등을 지적하고 있다.



다양한 정체성의 여성을 소개하는 기사

서울YWCA는 인터넷 기사가 여성의 ‘젊음’, ‘외모’ 등에만 주목하는 태도를 꾸준히 비판해 왔다. 여성의 외모에만 집중하며 다양한 경력과 이야기를 가진 여성을 배제해왔던 양태를 탈피해 자신의 경력을 쌓아가는 여성들을 소개하는 기사들이 눈에 띄었다. 또한 다양한 정체성에 관한 기사들도 주목할만하다. 장애 여성 혹은 자녀를 둔 장애인 부부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기사, “제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 관련 기사들을 소개한다. 여기에는 남성 장애인에 비해 부족한 여성 장애인 교육 기회를 알리는 기사, 일상 속 평범한 시민으로서 서로 협력하며 살아가는 장애인 부부의 이야기, 여성 시각 장애인의 일상을 소개하는 인터뷰 등을 소개하는 기사가 포함된다. 다만, 장애인과 관련된 다수의 기사가 4월 20일 ‘장애인의 날’ 즈음에 보도되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특정한 날에만 특집 기사로 장애 여성, 장애인 가족 등을 다루는 것은 기사 자체가 장애인에 대한 시혜로 읽힐 수 있으며, 사안과 관련된 문제를 지속적으로 살펴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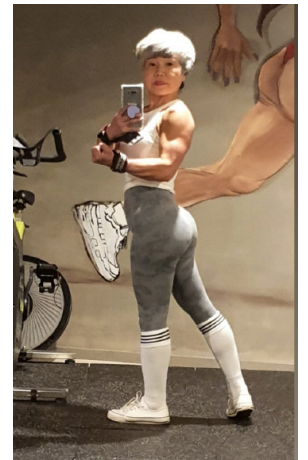
기사제목

분석

동아일보 4/24

허리 아파 시작했는데...30년 젊어 보이게 만든 ‘근육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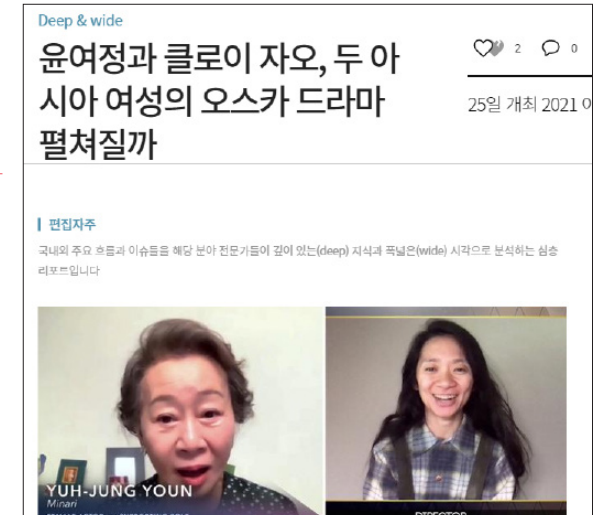
여성의 나이와 몸, 건강에 대한 편견에 균열을 내는 여성을 소개하는 기사다. 사회적으로 젠더화된 몸이 아니라 건강을 위해, 나를 위해 운동하는 노년 여성의 삶을 보여준다. 노년 여성의 새로운 도전과 삶을 가시화하면서 다양한 노년 여성들의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드러낸 점이 인상적이다.



중앙일보 4/25

외신들 일제히 “윤여정 선두, 새 역사 쓸 것”...오스카 품나

기사는 93회 아카데미 시상식의 여성 및 유색인종 수상후보에 관한 기사로, 여성 및 아시아계 배우와 감독 다수가 후보에 오른 기록을 언급하였다. 동시에 영화계에서 여성과 유색인종, 무슬림 등을 향한 차별이 만연한 문제와 여성, 아시아계 회원이 소수만 존재하는 성차별적 현실을 꼬집었다.



한국일보 4/21

윤여정과 클로이 자오, 두 아시아 여성의 오스카 드라마 펼쳐질까

경향신문 4/20

[오래 전 '이날'] 4월 20일 ‘말뿐인 장애인 교육권’

해당 기사는 장애인들의 학력 및 고용률 실태를 지적하는 한편, 남성 장애인보다 여성 장애인의 학력 문제가 더 심각함을 드러낸다. 여성 장애인은 삶의 영역 전반에서 남성 장애인보다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장애인, 특히 여성 장애인들에게 기본권인 교육권이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기사제목	분석
<p>KBS 4/20</p>	<p>[영상] 2021, 어느 장애인 부부의 육아일기</p>	<p>장애인을 불쌍하고 안타깝게 여기는 시혜적 시선이 장애인에게 폭력일 수 있다는 것을 짚어낸다. 두 인터뷰이가 소수자로서 사회에서 겪었던 어려움, 경험들을 각자의 목소리를 통해 고르게 전달하고 있다. 장애인을 향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이 일상적인 폭력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그들도 평범하게 일상을 사는 시민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장애를 대상화하는 관점에 균열을 내는 기사다.</p> 
<p>KBS 4/22</p>	<p>[앵커 초대석] 시각장애 유튜버 허우령 "장애가 있어도 나는 나"</p>	<p>장애 여성 당사자의 목소리를 통해 장애 여성의 일상을 가시화한다. 장애와 비장애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며 정상과 비정상을 끊임없이 구분하는 사회적 인식을 돌아보게 한다. 특히 비장애인의 신체와 관점으로 설계된 물품에 대해 소개함으로써 평범하지만 일상적으로 누리고 있는 특권에 대해 생각해보게 하는 기사다. 다만, 기사 초입부에 "여전히 장애인들에게 불친절한 세상"이라고 수식한 것은 적절치 않다. 장애인에게 친절해야 한다는 시혜적 태도가 반영돼 있기 때문이다.</p> 
<p>경향신문 4/19</p>	<p>[지금, 여기]모두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p>	<p>4월 1일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에 관하여, 성소수자로서 자신의 경험을 담은 오피니언이다. 트랜스젠더를 비롯해 성소수자 학생들이 학교에서 심각한 혐오와 차별에 직면해 있음을 알린다. 전국 지자체에서 학생인권조례에 성정체성과 성소수자 학생에 대한 대책을 명시해야 함을 지적했다. 성소수자 학생들을 배제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강조하여 사회의 다양성을 지켜내고자 한 오피니언이다.</p>

2 성차별적 내용

작년 인터넷 기사 모니터링에 비해 성평등적 내용을 담은 기사가 늘어난 일은 반갑다. 그러나 성별 간 고정관념과 갈등을 강화하는 기사가 여전히 존재했다. 또한 네이버 뉴스 스탠드의 제목과 실제 제목이 달랐다. 뉴스 스탠드에서 언론사들이 기사제목으로 주목도를 높여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 성차별적이며 보도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제목으로 바꾸어 게시하는 경우였다. 비교를 위해 실제 기사 제목과 뉴스 스탠드 제목을 함께 제시했다.

성범죄 보도에 있어서도 성차별적이고,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는 기사를 다수 발견했다. 가해자 입장에서 사건을 서술하고, 범죄를 필요 이상 상세하고 자극적으로 묘사하거나, 가해자를 비현실적인 존재로 그려 성범죄의 일상성을 왜곡하는 기사였다. 여성의 외모와 신체를 규격화하여 평가하고 성적대상화 하는 기사와 특정 직업이나 자격을 비하하는 기사, 이목을 끌기 위한 목적으로 접두사 '여'(女)를 사용하는 사례들을 실었다. 더불어 기사의 맥락과 무관한 '맘'(mom)이라는 표현으로 여성의 정체성을 제한한 사례를 제시한다.

① 젠더 고정관념 및 갈등 조장

기사를 통해 젠더 고정관념을 강화하거나, 특정 성을 비방하며 갈등을 조장하는 기사가 있었다. 연예인들의 근황을 소개하는 기사에서 남성 연예인은 현재 출연 중인 작품에 관한 사항을 소개하는 반면, 여성 연예인의 경우 주로 외모 조명하거나 나이를 언급하며 나이에 비해 동안이라는 표현을 칭찬인 듯 사용한다. 사회적 활동으로 평가받는 남성에게 비해 여성을 나이와 외모에 의해 평가하는 것은 남성은 능력, 여성은 외모가 경쟁력이라는 인식을 강화할 수 있다.

특정 성별을 겨냥하는 기사 또한 특정 젠더에 대한 혐오감과 반발 의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중국 내 지하철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승객에 대한 기사를 예로 들 수 있다. 지하철에서 다른 승객들에게 불편함을 끼친 승객을 '여성'으로 지칭하여 여성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고, '남성' 승객들이 불편함을 겪었다는 설명으로 불필요한 성별 간 대립구도를 강조하였다. 인천시가 진행한 페미니즘 소모임 지원사업 철회 청원에 대한 기사는, 페미니즘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특정 집단의 발언을 제목으로 삼아 페미니즘의 의미를 왜곡하며 젠더와 관련된 논쟁을 강화하고 있다.

▶ 젠더 고정관념 형성

	기사제목	분석
<p>일간스포츠 4/25</p>	<p>실제 '런닝맨' 〇〇〇, 90년대 미스코리아 사자머리에도 빛나는 미모</p>	<p>런닝맨 촬영 콘셉트에 따라 90년대 복고패션으로 차려입은 여성 출연자를 향해 '빛나는 미모'라며 외모를 평가하고 있다. 반면, 같은 날, 같은 언론사에 게시된 드라마 <나빌레나> 종영에 관한 기사에서는 남성 출연자의 역할과 노력에 대한</p>

기사제목	분석
일간스포츠 4/25	네이버 뉴스스탠드 메인 ○○○, 90년대 사자머리에도 빛나는 미모 [참고] 실제 종영 앞둔 '나빌레라', 아쉬움 달랠 ○○○→○○ 비하인드 공개 네이버 뉴스스탠드 메인 종영 앞둔 '나빌레라', 비하인드 공개

헤럴드경제 4/25	"어머니, 거기가 아니라 아래 칸입니다"[식탁] 음식물 보관방법에 대한 기사다. 냉장고 속 음식물 보관은 성 별과 상관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기사 내용은 어머니에 게 조언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기사 이미지에서 냉장고 문을 열고 있는 것은 여성의 손으로 추정된다. 부엌일 과 살림에 관련된 주요 역할이 여성, 어머니의 역할이라는 전 형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이 반영돼 있다.
---------------	---



성별 갈등 조장

기사제목	분석
뉴데일리 4/21	"5인 이상 페미 모임에 200만원, 황당한 인천시"... 철회 청원만 이들 새 7개 '뽕물' 이 기사는 페미니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점을 반영한다. 페미니즘 모임을 지원하는 인천시를 '황당' 하다고 하면서 페미 니즘의 맥락과 의미를 축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동아일보 4/20	실제 "제 집 안방마냥..." 지하철 좌석에 드러누운 여성들 '눈살' 한국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 중국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한 기 사다. 이 기사는 지하철 자리를 독차지하는 개념 없고 폐를 끼 치는 승객을 '여성'으로 지칭하여 비난한다. 기사 중에는 "주위 에 자리가 없어서 서 있는 남성 승객들의 모습이 보인다"라면 서 굳이 남성의 불편함을 언급하며 성별을 구분하여 강조한다.

기사제목	분석
동아일보 4/20	메인 "안방마냥..." 지하철에 드러누운 여성들 '눈살' 페미니즘에 대한 반발이 심한 상황에서 여성혐오와 성별 간 갈 등을 부추길 수 있기에 문제적이다. 

② 성차별적·선정적 성범죄 보도 관행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는 2011년 '인권보도준칙'을 제시한 바 있다. 특히, "성범죄 보도는 사건의 특성상 취재와 보도
과정에서 피해자와 그 가족 등이 2차 피해를 볼 수 있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매우 신중히 접근해야 한
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2020년에 이어 올해에도 여전히 성범죄 관련 보도에서 변화되어야 할 부분들이 눈에 띈다.

제목에 가해자의 변명이나 서사를 활용

성범죄 사건 기사 제목에 가해자의 주장이나, 가해자의 입장에서 서술된 표현을 사용하는 사례가 있었다. 한국기자협회 "성폭
력 범죄 보도 세부 권고 기준"에서는 다음과 같은 배경에서 성폭력 범죄 보도 세부 권고 기준을 제안하고 있다. "그동안 수많은
성범죄가 가부장적 사회구조, 남성 중심적 성문화와 그릇된 성인식 등으로 인해 사적 영역의 문제로 여겨져 은폐되거나 본질이
왜곡되어왔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에 대한 객관적 서술과 범죄 사실 명시는 성범죄가 가부장적 사회구조와 남성 중심적 성문
화로 인해 개인의 문제로 다루어질 것이 아니라 공적 문제로 파악 하는데 필수적이다. 아래 성범죄 사건을 가해자 입장에서 서
술하는 제목과 내용을 담은 기사를 소개한다.

기사제목	분석
뉴스시 4/23	어린 딸들 상대로 성적욕구 채운 50대 아버지 징역 6년 성폭력 사건을 보도하며 '어린 딸들', '성적 욕구' 등의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기사. 가해자의 입장에서 서술한 '성적 욕구' 등의 단어는 성폭력 범죄가 욕구에 의해 추동되는 것이 라는 인식을 강화한다.

기사제목	분석
스포츠동아 4/23	[종합] 혐의 부인해온 조재범 “○○○와 합의된 성관계” 주장 스포츠 지도자가 여성 스포츠 선수를 어렸을 때부터 성추행, 성폭행한 사건을 보도하며 가해자의 주장과 입장에만 집중하는 기사다. 제목에 있는 ‘종합’이라는 단어가 무색할 정도로 편파적이다. 가해자가 자신의 범죄를 정당화하기 위해 주장한 의견만을 나열함으로써 가해자에게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는 인식을 강화해 성범죄를 정당화하고, 2차 피해를 만들어내고 있다.

기사 제목과 내용에서 가해자의 행위를 묘사

기사는 사건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보도를 전달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러나 성범죄에 대해 자극적인 표현을 기사 제목과 내용에 담아 이목을 끌고 있다. 성추행 장면을 묘사하며, ‘간호사 엉덩이를 툭툭’, ‘요즘엔 처녀 없어’ 등의 표현 등을 사용하는 것은 가해 행위를 묘사하는 것이므로 개선되어야 한다. 직접 성적인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말 줄임표(…)를 사용해 기사의 내용과 별개의 내용을 암시하는 경우도 있다. 언론 보도 준칙에 명시되어 있듯, 가해 행위의 상세한 묘사는 피해야 하며 제목에는 더욱 지양해야 한다.⁵

기사제목	분석
마이데일리 4/20	실제 ○○○, ○○○에 “오빠 죽으면 젊은 남자랑 바로 재혼할 것” 네이버 뉴스스탠드 메인 “젊은 男과...” ○○○, 남편 앞 파격발언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부부의 대화 중 재혼에 관한 기사이다. 실제 기사 제목과 내용은 성차별적이지 않다. 반면, 메인 제목은 “젊은 男과...”라는 말과 말줄임표를 사용하여 선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마이데일리 4/20	실제 “젓가슴-머리채 부여잡아” YH사건 현장 사진...○○○ 녹화 중단 네이버 뉴스스탠드 메인 “젓가슴-머리채 부여잡아” YH사... 여성을 향한 부당한 해고에 맞서는 여성해고 노동자들의 저항과 이를 막으려는 과도한 폭력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젓가슴’이라는 단어를 가장 앞에 내세워 자극적으로 기사 헤드라인을 뽑아내고 있다. 이는 노동차별과 폭력의 맥락을 지울 뿐만 아니라, 폭력에 노출된 여성의 신체를 분절화 하는 효과를 가져오기에 문제적이다.
서울신문 4/20	실제 머리 상처 소독해주는 간호사 엉덩이 ‘툭툭’...50대男 벌금형 네이버 뉴스스탠드 메인 머리 상처 소독해주는 간호사 엉덩이를 ‘툭툭’ 성범죄 사건 보도는 피해자 보호 및 2차 가해 방지를 위해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사안이다. 하지만 해당 기사는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 피해 상황을 강조하거나, 선정적, 자극적인 제목을 선정했기에 문제적이다. 특히 서울신문의 경우 성범죄 보도 앞에 <단독>을 붙여 자극적인 성범죄 보도를 강조하는 경향성을 보였다.

기사제목	분석
서울신문 4/23	실제 [단독] “왜 다른 남자랑 연락해”...18살 차 여친 14시간 감금·폭행 50대 입건 네이버 뉴스스탠드 메인 [단독] “왜 다른 남자랑 연락해” 여친 14시간 감금 성범죄 사건 보도는 피해자 보호 및 2차 가해 방지를 위해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사안이다. 하지만 해당 기사는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 피해 상황을 강조하거나, 선정적, 자극적인 제목을 선정했기에 문제적이다. 특히 서울신문의 경우 성범죄 보도 앞에 <단독>을 붙여 자극적인 성범죄 보도를 강조하는 경향성을 보였다.
서울신문 4/25	실제 “몸 못 가누는 여성 탕어” 만취 여성객 납치·성폭행 택시기사들 실형 네이버 뉴스스탠드 메인 “몸 못 가누는 여성 탕어” 성폭행 택시 기사들 실형 성범죄는 구조적인 문제이고, 또한 피해자 보호 및 2차 가해 방지를 위해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사안이지만, 클릭수를 높이기 위해 피해 상황을 강조하거나, 선정적, 자극적인 제목을 선정했기에 문제적이다.
스포츠 동아 4/19	실제 ‘원정 성매매’ ○○ “어둠은 빛을 파괴하지 않는다” 네이버 뉴스스탠드 메인 ‘원정 성매매’ ○○, 의미심장한 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한 ‘원정 성매매’ 등의 단어를 사용해, 여성 연예인의 과거를 자극적으로 소비하는 기사. SNS에 올라온 연예인의 글과 관련 없는 제목으로 조회 수를 유도하고 있다.
스포츠서울 4/24	실제 “요즘 처녀 없어” “강남 못살면 개” 간담회 ‘막말’ 해경경무관, 대기발령 네이버 뉴스스탠드 메인 “요즘 처녀 없어” 해경경무관의 막말 가해자인 해경 간부가 한 성희롱적 발언을 인용하여 기사 제목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였다. 성적 괴롭힘 발언과 혐오 발언은 단순히 ‘막말’로 지칭하며 사소하게 표현해서는 안 된다. ‘해경경무관, 성희롱 발언 및 폭언으로 대기발령’ 식의 제목을 붙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파이낸셜뉴스 4/24	실제 “요즘 처녀가 없다” ...‘성희롱 발언-막말’ 해경청 간부 대기발령 네이버 뉴스스탠드 메인 처녀가 없어서 섭섭한 해경간부 “女는 전쟁나면...” 가해자인 해경 간부가 한 성희롱적 발언을 인용하여 기사 제목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였다. 성적 괴롭힘 발언과 혐오 발언은 단순히 ‘막말’로 지칭하며 사소하게 표현해서는 안 된다. ‘해경경무관, 성희롱 발언 및 폭언으로 대기발령’ 식의 제목을 붙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파이낸셜뉴스 4/20	실제 성관계 하려면 남자 얼굴에 크림 범벅해보라?...‘기괴한 성교육’ 네이버 뉴스스탠드 메인 성관계 하려면 남자 얼굴에... 뉴스 스탠드의 메인 제목에서 말줄임표를 이용하여 만든 자극적인 기사 제목이 문제적이다.

5. 한국기자협회, 성폭력, 성희롱 사건보도 공감기준 및 실천요강, https://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11

가해자를 비현실적인 존재로 묘사

기사에서 성범죄 가해자를 ‘악마’라고 칭하는 것은 문제적이다. 가해자를 비일상적이고, 극단적인 인물로 표현하는 것은 성폭력, 성희롱 사건의 일상성을 가리고, 사건의 원인이나 범행 동기에 대해 잘못된 통념을 강화할 수 있다. ‘성폭력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성적 언동을 말한다. 언론에서 집중 부각하는 성폭력은 가해자가 무자비하게 피해자를 유린하는 내용이나, 가해자가 특별히 반사회성을 보이는 경우 등 특수하고 잔인한 사건들에 집중되어 있기에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 즉 잔인성과 무자비함을 보여야 성폭력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⁵

기사제목	분석
<p>아이뉴스24 4/21</p> <p>실제 “수유동 악마” 길 가던 여성 납치·감금…사흘간 성폭행</p> <p>네이버 뉴스스탠드 메인 “수유동 악마” 길 가던 여성 납치·감금…</p>	<p>해당 기사는 길가에서 모르는 여성을 납치 후 감금, 강간, 폭행한 중대한 성범죄 사건을 다루고 있다. 기사에서는 가해자를 ‘수유동 악마’라고 칭하고 있는데 성범죄의 가해자를 악마와 같이 비일상적이고 극단적인 인물로 묘사하는 것은, 성폭력을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아닌, 일탈적인 문제로 그려낼 수 있기에 문제적이다.</p>

성범죄 및 여성 혐오 범죄를 사소화시키는 표현 사용

성범죄 및 여성 혐오 범죄를 사소한 일로 치부하는 표현들을 자제하자는 사회적 의견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음란물’, ‘아동’은 ‘성착취물’이다. ‘몰카’가 아닌 ‘불법 촬영’이다. ‘묻지마 폭행’이 아닌 ‘무차별 폭행’이다. ‘몹쓸 짓’이 아닌 ‘성범죄’이다. 성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들을 다른 말로 돌려 말할 때, 문제를 사소하게 느낄 수 있기에 명확한 표현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기사제목	분석
<p>중앙일보 4/25</p> <p>실제 여성 가슴 만지고 도망친 그놈, 여자친구 집에서 딱 걸렸다</p> <p>네이버 뉴스스탠드 메인 여성가슴 만지고 도망친 그놈, 여친 집에서 잡혔다</p>	<p>성추행 가해자인 남성을 체포했다는 내용의 기사다. 여성의 신체를 만지고 도망친 성추행 사건을 ‘여성 가슴 만지고 도망친 그놈’이라고 표현해 성범죄를 사소한 장난처럼 보이게 했다.</p>
<p>중앙일보 4/25</p> <p>실제 여고 화장실 23번 들락날락… 몰카 교사는 왜 발만 노렸나</p> <p>네이버 뉴스스탠드 메인 여고 화장실 찍으려 23번 들락날락…‘몰카’ 교사 결국</p>	<p>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하여 징역을 선고받은 40대 남성 교사에 관한 기사다. 제목에서 불법 촬영 범죄를 ‘몰카’라는 단어로 설명하여 범죄를 사소한 것처럼 보이게 했다.</p>

부적합한 이미지 사용

기사 속 삽화는 기사 내용을 압축적이고, 직관적으로 전달한다. 기사를 통해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삽화, 그래픽, 재연 등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러나 기사에 성범죄가 여성의 정서적, 사회적 회복을 어렵게 한다는 ‘낙인’의 이미지를 강조하는 이미지, 위력을 가하는 남성과 무력하게 피해를 당하는 웅크린 여성의 이미지 등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었다.

기사제목	분석
<p>국민일보 4/19</p> <p>실제 “아빠 죄책감 느낄까 말 못해”… 딸 극단 선택에도 혐의 부인</p> <p>네이버 뉴스스탠드 메인 “아빠 죄책감 느낄까…” 딸 극단 선택에</p>	<p>기사의 이미지는 전형적인 피해자와 가해자 고정관념을 고착화하는 이미지이다. 기사 제목에서 가해자의 서사나 변명을 가져오지는 않았지만, 가해자이면서 유일한 보호자였던 아버지를 향한 피해자의 복잡한 심정 묘사를 제목으로 가져온 것 또한 사건을 가십거리로 전락하게 하며, 피해자를 수동적이고 시혜적인 태도로 바라보게 하기에 문제적이다.</p> 
<p>노컷뉴스 4/19</p> <p>몰래 술 마셨다고…두 딸에게 쇠파이프 든 아빠</p>	<p>기사에 사용된 해당 이미지는 전형적인 피해자와 가해자 고정관념을 고착화하는 이미지이다. 몰래 술을 마신 딸을 향해 쇠파이프로 폭력을 행사한 아버지의 사례를 자극적인 제목으로 전시했을 뿐만 아니라, 폭력의 원인을 묘사할 때 가해자의 변명 ‘훈육목적’으로 했다는 것을 그대로 인용한다. 폭력 발생 원인을 가해자의 행동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찾는 것은 문제적이다.</p> 
<p>서울신문 4/19</p> <p>실제 “돈 많이 벌 수 있어” 사귀는 척 장애 여성들 성매매 유인</p> <p>네이버 뉴스스탠드 메인 “돈 벌 수 있어” 사귀는 척…소름 돋는 ‘용주골’</p>	<p>여성을 대상으로한 범죄였다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유명한 성매매 지역명(용주골)과 “사귀는 척”과 같은 표현을 통해 사건을 자극적으로만 소비하는 기사다. 특히 기사에 사용된 이미지 또한 문제적이다. 해당 이미지는 성범죄가 여성들에게 회복 불가능한 “낙인”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공고히 할 수 있다.</p>

기사제목	분석
<p>서울신문 4/19</p> <p>실제 “돈 많이 벌 수 있어” 사귀는 척 장애 여성들 성매매 유인</p> <p>네이버 뉴스스탠드 메인 “돈 벌 수 있어” 사귀는 척...소름 돋는 ‘용주골’</p>	<p>“돈 많이 벌 수 있어” 사귀는 척 장애 여성들 성매매 유인</p> 

③ 외모에 대한 평가

보고서에 여성 연예인 사진을 또 한 번 게재하는 것이 사진을 한 번 더 확산하는 상황이 될 것을 우려해 사진을 제외했다. 본문 서술에서도 가급적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다.

‘인형 미모’, ‘여신’, ‘밀가루 피부’ 등의 단어를 사용한 외모를 평가

여성의 외모를 통해 여성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사가 다수 발견되었다. 이는 자칫 ‘칭찬’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외모’를 기준으로 행해지는 평가는 외모가 여성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과 연결된다. 또한 기사를 통해 칭찬받을만한 외모를 가져야만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강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여성 연예인 뿐 아니라 연예인의 10대 자녀의 외모를 평가하는 기사 또한 종종 볼 수 있다. 이러한 평가는 아동에게도 외모에 대한 평가와 억압을 가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낼 수 있다.

기사제목	분석
<p>스포탈 코리아 4/19</p> <p>실제 ○○○이 말하는 ‘월드컵 레전드짤’ 비하인드 스토리</p> <p>네이버 뉴스스탠드 메인 ‘여신’ ○○○이 말하는 월드컵 레전드 짤</p>	<p>‘여신’ 단어를 사용하여 여성의 외모를 평가했다. 이 같은 기사가 반복적으로 등장할 경우 외모가 여성에게 중요한 가치라는 인식을 재생산할 우려가 있다.</p>
<p>스포탈 코리아 4/11</p> <p>실제 짧은 치마+밀가루 피부 ○○○ 치어리더 미모</p> <p>네이버 뉴스스탠드 메인 짧은 치마+밀가루 피부 ○○○ 치어리더</p>	<p>한 여성 치어리더가 본인의 SNS에 업로드한 사진을 가져와 여성의 짧은 치마와 피부를 강조했다. 배우, 치어리더로서 경력에 집중하기보다 보이는 비주얼과 외모에만 집중함으로써 외모에 대해 평가하기에 문제적이다.</p>

기사제목	분석
<p>OSEN 4/25</p> <p>○○○ 딸 ○○, 10살에 완성형 미모...아역배우 데뷔가 시급 [Oh!마이 Baby]</p>	<p>10세 아동에 불과한 여성 연예인 딸의 외모를 ‘완성형 미모’, ‘배우 데뷔가 시급’ 등의 표현으로 평가하는 기사다.</p>

외모 기준 획일화

여성 연예인의 신체 일부분을 ‘개미허리’, ‘애플힙’, ‘환상 몸매’, ‘S라인’, ‘풍만한 볼륨’ 등으로 표현하는 기사가 많았다. 심지어 키와 몸무게와 같은 신체 정보를 공개하며 덧붙여 “참 말랐는데 볼륨감까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표현들은 여성의 신체를 왜곡된 기준으로 획일화한다.

기사제목	분석
<p>마이데일리 4/23</p> <p>실제 ‘○○♥’ ○○○, 소멸 직전 소두+개미허리...점점 예뻐지네</p> <p>네이버 뉴스스탠드 메인 ‘점점 예뻐지네...’ ○○○, 물오른 미모</p>	<p>여성 연예인이 sns에 올린 사진을 가져와 제목에서 ‘환상몸매’, ‘개미허리’, ‘애플힙’, ‘S라인’ 등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실제 제목과 달리 메인에 노출되는 제목에는 ‘충격적’ 등의 단어를 삽입해 조화를 유도하며, 특정 형태의 여성의 신체만이 긍정적이고 ‘미적인’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성차별적이라 볼 수 있다.</p>
<p>스포츠 동아 4/22</p> <p>실제 ○○○, 개미허리 인증샷</p> <p>네이버 뉴스스탠드 메인 ○○○, 말도 안되는 개미허리 충격적</p>	
<p>스포츠 조선 4/25</p> <p>실제 ○○○, 비키니 대회 앞두고 환상몸매 과시..개미허리+애플힙 ‘완벽 S라인’</p> <p>네이버 뉴스스탠드 메인 ○○○, 비키니 대회 앞두고 환상 몸매 과시.. 개미허리 + 애플</p>	
<p>스포츠서울 4/24</p> <p>실제 ‘10년만 임신’ ○○○, “신랑이 짝어준...” 검사 남편과 햄북는 D라인 일상</p> <p>네이버 뉴스스탠드 메인 ‘10년만 임신’ ○○○, D라인도 ‘우월’</p>	<p>여성 배우가 SNS에 올린 사진을 사용했다. 제목에서 ‘D라인도 우월’, 본문에서 ‘D라인에 우아한 미모를 뽐냈다.’라며 임신한 여성의 몸을 ‘S라인’과 비슷한 맥락의 ‘D라인’으로 표현해 성적 대상화했다.</p>

	기사제목	분석
스포츠조선 4/25	실제 '4kg 감량' ○○○ "남편이 손들고 서있으래요" 네이버 뉴스스탠드 메인 '24kg 감량' ○○○ "남편이 손들고 서있으래요"	여성 연예인이 SNS에 업로드한 사진을 가져와 보도했는데, 이 때 해당 여성 연예인이 올린 SNS게시글에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은 몸무게 감량을 강조해 여성 연예인 사진을 보도하는 기사다. 이는 여성 연예인의 다이어트를 강조함과 동시에 몸무게 감량이 여성 연예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행위라는 인식을 공고히 한다.
한국경제TV 4/23	이 몸매 실화?...살 쪽 빠진 ○○○, 고속도로 각선미	여성 래퍼가 SNS에 올린 화보 촬영 사진을 사용했다. 제목에서 '고속도로 각선미', 본문에서 '개미허리', '쪽 뺐은 각선미'라는 표현으로 여성을 성적 대상화했다. 또한 (살을 빼서) '예뻐진 미모'라고 표현하여 여성에게 마른 몸매만을 추구하는 외모지상주의를 드러낸다.
OSEN 4/20	실제 '170cm·50kg' ○○○, 제주도에서 보면 이런 모습... 삼남매와 행복한 여행 네이버 뉴스스탠드 메인 '170cm·50kg' ○○○, 제주도에서...	여성 연예인이 SNS에 게시한 일상사진을 키와 몸무게를 강조한 제목을 달아 폄평하는 기사들이다. 포탈에 제시되어있는 키와 몸무게 수치를 언급해 특정 형태와 기준에 들어맞는 신체만이 바람직한 듯이 쓰고 있다. 직접적으로 연예인의 키와 몸무게를 강조하는 것은 여성의 신체가 '말라야하고, 거기에 더해 특정 신체 부위는 부각되어야 하는 '볼륨감'까지 가져야 함을 강조함으로써 여성에 대한 외모 억압을 강화한다.
OSEN 4/21	'166cm·43kg' ○○, 참 말랐는데 볼륨감까지 다 가진 '가시나'	
OSEN 4/24	'167cm·47kg' ○○○ ○○, 실제로 보면 이런 모습.."커피에 미친 애"	

④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기사 제목과 관행적 묘사 방식

이번 모니터링을 통해 발견된 성적 대상화 사례는 55건이었다. 한 연예인에 대한 기사가 반복되기도 했고, 성적 대상화의 방식이 동일한 사례도 다수 발견되었기에 보고서에는 대표적인 사례만 실었다. 특히 '풍만한 볼륨' '매끈한 라인' '아찔한 섹시美' 등의 표현으로 여성을 성적대상화하는 제목을 사용한 관행적 기사가 다수 발견되었다.

	기사제목	분석
마이데일리 4/21	DJ○○, 어깨끈만 노출 풍만한 볼륨	'풍만한 볼륨', '몸매'라는 표현을 통해 여성의 신체를 성적인 대상으로 보고 있다.
스포츠서울 4/19	실제 300만 팔로워의 미녀파이터	미국의 한 여성이 SNS에 올린 요가 사진을 기사에 사용했다. '거의 알몸으로 요가하는 모습을 시연해 팬들의 뜨거운 호응',

	기사제목	분석
스포츠서울 4/19	○○○ ○○○, 매끈한 라인의 비결은 요가! 네이버 뉴스스탠드 메인 '300만 팔로워' ○○○, 요가로 라인	'탄탄하고 유연한 라인', '팬들이 좋아요 버튼을 누르며 찬양(?) 했다'는 표현으로 여성을 성적 대상화했다. 사진 역시 신체가 대부분 노출된 사진을 이용했다.
스포츠서울 4/21	실제 ○○○○, 금발+데님 비키니로 아찔한 섹시美[★화보] 네이버 뉴스스탠드 메인 ○○○○, 데님 비키니로 섹시美	여성 가수의 사진 중 가슴과 허벅지가 가장 드러나는 사진을 기사 메인으로 선정한 것은 여성의 신체를 클릭수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물오른 미모' 와 같은 수식어를 통해 여성의 외모에 대한 평가 또한 이루어지고 있다. 여성 래퍼가 SNS에 올린 사진과 글을 사용한 기사도 위와 유사하다. 제목에서 '아찔한 섹시美', 본문에서 '볼륨 있는 비키니 몸매', '글래머러스한 S라인'이라는 표현으로 여성을 성적 대상화했다.
이데일리 4/21	실제 ○○, 물오른 미모 네이버 뉴스스탠드 메인 물오른 미모	

⑤

성차별적인 표현으로써 '여(女)' 사용

2020년 대중매체 양성평등 내용 분석 보고서를 통해 접두사, 접미사 '여(女)' 사용 지양할 것을 지속적으로 제안해왔으나, 여전히 많은 기사에 여제, 여의사, 여배우, 여직원, 여대생, 여기자, '○○녀' 등의 단어가 등장했다. 이러한 표기 관행은 '남성이 표준'이라는 잘못된 고정관념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성차별적이다.

직업/자격 등을 비하하는 '여OO'

	기사제목	분석
스포츠서울 4/19	실제 '여제' ○○○, 13년만+통산 4번째 정규리그 MVP...남자부는 통합우승 주역 ○○○ 네이버 뉴스스탠드 메인 ○○○, 통산 4번째 정규리그 MVP	배구 리그에서 MVP로 선정된 여성 배구선수에게 '여제'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선수 중 최우수한 선수라면 '황제'나 본래 명칭대로 'MVP'를 사용하면 된다. 불필요하게 '여(女)'를 붙여 '여제'라고 표현한 것에서 남성을 주류로 전제하는 성별 고정관념을 드러낸다.

▼ 선정주의적 소재로 '여(女)'를 사용

기사 제목에 '여(女)'를 사용해 조회수를 늘리는 관행을 고치려는 자정의 목소리는 기사 집단 내에서도 있어 왔다. 2018년 연합뉴스는 “기사 작성 시 젠더 표기가 없어도 독자가 내용을 이해하는데 지장이 없으면 남녀를 모두 표기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맥락상 성별 표시가 필요할 경우 남녀 모두를 표기한다. 남성 또는 여성만 있는 기사에서도 필요 시 성별 표시를 쓸 수 있다”⁶ 라는 문장을 담은 보도 작성 개선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여전히 언론사들은 '여(女)'를 사용해 자극적인 제목을 만들고 있다. 굳이 성별을 밝히지 않아도 되는 내용임에도 '여(女)'를 사용하는 것은, '여성'을 주의를 끄는 도구로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사제목	분석
<p>스포츠동아 4/25</p> <p>실제 [종합] '물어보살' 배우지망생 ○○○, 사망...향년 23세</p> <p>네이버 뉴스스탠드 메인 '배우지망생 사망... "출생신고안돼"'</p>	<p>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이후, 배우로 활동하던 여성의 사망 소식을 전하며 '女배우' 등의 단어가 들어간 제목을 메인에 노출시켜 여성임을 자극적으로 강조해 조회수를 유도하는 기사. '여배우' 라는 단어가 한국 사회에서 사용되는 맥락을 고려해볼 때, 이 제목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여성의 죽음을 폭력적이고 차별적으로 소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프로그램 출연 당시 여성이 고백했던 가정사 또한 맥락 설명 없이 자극적으로 잘라 제목에 넣어 활용하고 있다.</p>
<p>조선일보 4/22</p> <p>실제 강화 농수로 맨발의 여성 변사체... 경찰 "흉기에 찔려 사망"</p> <p>네이버 뉴스스탠드 메인 강화 농수로, 女 변사체, 흉기에 찔려 사망</p>	<p>기사 제목에 불필요한 피해자의 성별을 명시하여 선정주의적 소재로 '여'를 사용하고 있다.</p>
<p>스포츠동아 4/25</p> <p>"논란女" ○○○ '내일의 기억', 3일 연속 1위...반짝 인기 아니었다[종합]</p>	<p>여성 배우의 영화가 흥행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에 '논란女' 등의 단어가 들어간 제목을 붙여 본문의 내용과는 상관 없이 자극적으로 조회수를 유도하고 있다. 여성의 경우 아무렇지 않게 ○○녀가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성차별적인 기사 제목의 사례라 할 수 있다.</p>

▼ 여성에게 불필요하게 '맘(mom)'이라는 표현 사용

'여(女)'를 사용하는 것과 유사한 맥락으로, 자녀 유무가 기사 내용과 전혀 상관이 없음에도 아이 어머니에게 '맘'을 붙이는 사례가 다수 있다. 기사 내용과 상관없이 여성의 출산 여부를 공개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일뿐 아니라, 여성의 정체성을 모성으로 한정해버린다. 남성에게 아버지를 뜻하는 '대디', '파파'와 같은 표현이 흔히 사용되지 않는 것에 비추어 볼 때, '맘'을 맥락과 상관없이 사용하는 것은 양육자로서 여성의 역할을 강조하는 언어 표현일 수 있다.

기사제목	분석
<p>스포츠서울 4/19</p> <p>실제 '47세 맘' ○○○, 딸 낳잠자는 사이 반려견과 달콤한 휴식 [★SNS]</p> <p>네이버 뉴스스탠드 메인 ○○○, 달콤한 휴식 중 '찰칵'</p>	<p>불필요하게 여성의 출산 여부를 드러내는 기사 제목. 한 여성 연예인의 정체성을 맥락과 상관없이 '어머니'로 규정하고 있다.</p>

6 _____ 한국기자협회, "연합뉴스, 기사에 '여성차별적 젠더 표기' 안하기로...노조 "타 매체에도 긍정적 영향 있길...모니터링 강화할 것", 2018. 10. 22

[나가며]

이번 인터넷 기사 모니터링에서는 “성희롱·성폭력을 정당화하는 기사”들을 하나의 주제로 모아 살펴볼 수 있을 만큼 유사한 기사들이 여럿 발견되었다. 가해자의 입장에서 서술된 기사 내용이나 제목, 성희롱·성폭력을 입증한 범죄로 인식하지 않고 사소하게 여기는 기사들이 이에 속한다. 이러한 기사는 성범죄를 범죄로 명확히 인식하기 어렵게 한다. 이는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2차 가해가 될 수 있으며, 성범죄를 가볍게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기에 유의해야 한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기사들을 보고서에 실었다. 양육의 책임을 여성에게만 묻는 기사나 가사 노동을 여성의 몫으로 전제하는 기사들이다. 특정 성별에 특정한 임무를 요구하는 것은 성평등한 사회로 나아가는 데 걸림돌이 된다. 성범죄 보도 시 성차별적이고, 선정적인 보도 관행에 대해서도 지적한다. “관행”으로 불릴 만큼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제목에 가해자의 변명이나 서사를 활용하거나 기사 제목과 내용에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 가해자를 비현실적인 존재로 묘사, 성범죄 및 여성 혐오 범죄를 사소한 것으로 만드는 표현 사용이 여전히 빈번하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특정 성별의 외모를 평가하거나, 성적대상화하는 기사를 지적하였다. 작년에 비해 유사한 기사가 줄어든 것은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외모 평가, 성적 대상화로 성을 소비하는 기사가 있다. 또한 여성에게 맥락과 상관없이 ‘여’(女), ‘맘’(mom)을 사용하는 표현 방식을 사용하는 기사에 대해 문제제기했다. 여성에게 반복적으로 ‘여’를 사용하는 것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낮추거나 선정적인 소재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맘’(mom)은 불필요하게 여성의 출산 여부를 드러내며, 여성을 ‘어머니’로만 규정하는 선입견을 만든다.

주목해야 할 점은 성차별적 기사 유형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언론사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는 해당 언론사들이 성적 대상화나 성별 고정관념에 대한 지속적인 비판에도 이를 개선하거나 변화하려는 의지가 없음을 의미한다. 성차별적 기사를 성인지 관점에서 검토해야 하는 이유는 이미 포털 중심의 뉴스 소비 현실이 ‘필터 버블’(Filter Bubble)(인터넷 정보제공자가 맞춤형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해 이용자는 필터링 된 정보만을 접하게 되는 현상) 구조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필터 버블’에 의해 뉴스 구독자는 보는 신문사를 계속 보거나, 알고리즘에 따라 뉴스를 선택하게 되어서 평소 성차별적 기사를 보는 사람이 우연히 성평등 기사를 만나게 되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몇몇 언론사의 변화가 선도적이고 의미를 갖는 것은 높게 평가되어야 하지만, 이것이 전체 언론 환경에 확산되지 않으면 특정 독자들은 필터 버블에 갇힐 우려가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이러한 한계 속에서도 성평등한 보도 방식, 제목, 내용 등을 담은 기사가 눈에 띄게 증가한 점은 긍정적이다. 성평등적 내용의 기사가 증가한 이유로 미디어와 언론사의 노력을 꼽을 수 있다. 한국일보는 2021년 4월, ‘허스토리 뉴스레터’를 창간하여 여성 뉴스와 페미니즘 관련 뉴스를 아카이빙하고, 특집 기획 기사를 작성하고 있다. 한겨레 신문사는 2018년 10월 젠더 분야 담당 기자, 2019년 5월 젠더 데스크, 2020년 젠더팀을 만들었다. 2021년 5월에는 ‘젠더 보도 가이드라인’을 공표하며⁷, 성평등적 보도 관행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미투 운동 직후 ‘젠더 에디터 제도’ 등을 활용하면서 성평등 기사를 통해 신문사의 핵심 가치로 삼으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경향신문 역시 여성 서사 아카이브 형식의 ‘플랫폼’을 활용해 성평등 관점의 기사를 늘리고자 한다. 이러한 각 언론사의 개별적 노력이 모여 성평등적 기사의 증가로 이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상에는 많은 기사들이 빠르게 업로드 되고 빠르게 읽힌다. 인터넷 기사가 어떻게 ‘성’을 바라보고 표현하는지에 따라 개인의 성 역할 고정관념을 형성할 뿐 아니라 사회제도나 문화적인 영역에도 영향을 미친다. 인터넷 기사가 제시하고 있는 세계관이 성차별적이지 않은지 독자들이 한 발자국 거리를 두어 비판적으로 읽어야 하는 이유다.

7 _____ 이정연, 「성별 고정관념 강화하는 표현, 쓰지 않겠습니다」, 한겨레, 2021. 05. 19.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995795.html#csidx08a8e78bbc-cc756b3e31e257e10db2d>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인터넷 기사

1. 모니터 요원 :

2. 언론사 :

3. 매체명 :

4. 내용분석

1) 성평등적 내용

날짜	언론사	url	기사제목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사진/분석)

2) 성차별적 내용

구분	날짜	언론사	url	기사제목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사진/분석)
젠더(성별) 고정관념을 조장					
성희롱·성폭력 정당화					
외모에 대한 평가					
성적 대상화					
기타					

3) 종합의견

성평등적 내용 :

주체성, 현실 반영성, 대안성, 다양성을 중심으로.

- 성불평등적인 젠더 관계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여성이 처한 문제와 상황을 잘 파악하여 남녀불균형적인 현실을 적절히 묘사하고 있는가?
- 성평등을 위한 문제 해결방식을 과장되거나 희화화되지 않는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는가?
- 전통적으로 남성의 영역이라고 여겨졌던 분야에 진출한 여성의 능동성을 보여주고 있는가?
- 여성이 본인의 신념과 철학에 따라 일을 주체적으로 수행하는 장면을 제시하는가?
- 성역할 고정 관념에서 벗어난 다양한 역할을 표현하고 있는가?
- 다양한 가족형태를 긍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가?
- 나이, 젠더(성별) 등에 구애받지 않는 다양한 인물들을 등장시키고 있는가?

성차별적 내용

1. 젠더(성별)고정관념을 조장

- 여성성/남성성을 이분법적으로 규정하여 고정관념을 고착화하는 내용을 보이고 있는가?
- 특정 역할에서 성비의 수적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가?
- 남성중심적 성규범(강간 통념 등)을 강화하는 내용을 무분별하게 보여주고 있는가?
- 여성을 남성의 단순보조나 부속물로 취급하는 내용 혹은 그렇게 보이도록 하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가?

2. 성희롱·성폭력 정당화

- 가정폭력, 성희롱, 성폭력을 '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하도록 미화해 그리고 있는가?
- 출연자 및 방청객을 성희롱하는 행위 및 언어를 포함하고 있는가?
- 가정폭력, 성희롱, 성폭력을 불필요하게 노골적으로 전시하고 있는가?

3. 외모에 대한 평가

- 외모를 평가하는 발언을 하는가?
- 출연자의 외모를 조롱, 혐오의 대상으로 삼거나 그와 관련된 언어를 사용하는가?

4. 성적대상화

- 카메라의 구도나 움직임이 여성이나 남성의 신체를 분절하거나 특정 신체부위만을 부각하여 전시하는가?
- 여성을 남성의 성적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대상으로 바라보는가?

5. 기타

-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하지 않고, 이를 부정적으로 그리거나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 00녀와 같은 가부장적이거나 성차별적인 단어(혹은 어휘, 혹은 표현)를 사용하는가?

발행인
이유림

편집인
양선희

편집
최 봄 · 김예리 · 이지은
서울YWCA 여성운동국

감수
김수아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여성학협동과정 교수

발행처
서울YWCA

협력기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01)

인터넷 기사

2021 대중매체
양성평등 내용 분석 보고서